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 요인

박 현 이 | YMCA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문화팀장

'성'에 대해서 바로 알면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
자존감을 갖고, 잘못된 성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
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
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인 관계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
하는 상품이 아니라 상대방과 사랑과 친밀감을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자신과 상대방의 성적인 건강을 고려하면서 만남
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전한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열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청소년과 성병/에이즈(제1회)

청소년과 성병/에이즈클럽은 연재기획으로 5회에 걸쳐 게재됩니다.

향후 연재될 주재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위험요인

제2회 :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실태

제3회 : 청소년의 성병/에이즈감염 유행현황

제4회 : 청소년의 성/에이즈예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제5회 : 외국의 청소년 성병/에이즈예방교육

다른 어느 세대보다도 사이버공간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온라인 상의 익명성을 빌어 성적으로 대담해지고 있다. 반면에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성과 건강한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청소년들은 위험한 성에 거의 무방비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의 에이즈 문제가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달 여동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 60~70명과 원조교제를 해온 여고 중퇴생 K양(16)을 상대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K양은 지난해 가을한 뒤 3개월 여 동안 일주일에 5~6명씩 모두 60~70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에이즈 등 각종 성병감염이 우려돼 혈액검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다행히도 모든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97년 에이즈(AIDS)에 감염된 10대 남녀가 보건당국의 관리소홀로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도 수직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또한 먼저 에이즈에 감염돼 동거녀에게 병을 옮긴 10대 남자는 동거녀가 임신해있는 동안 또 다른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져 보건당국의 에이즈 감염인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향락산업의 기형적인 발전과 청소년 탈선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90년대 후반에 신분, 방승과 같은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는 '원조교제', '미성년자 매춘'



등이다. 연합뉴스(99.2.26)가 보도한 '원조교제'와 관련한 청소년들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8년 12월부터 두 달간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십대 소녀들의 8%가량이 원조교제를 경험한 바 있으며, 18세 미만 66.7%, 16세 이하가 32.4%를 차지한다.

채팅이나 전화 연락만을 통하여 여자 청소년들은 계약관계가 이루어져 비공식적인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남자 청소년들은 소위 '누나'들과 유희를 접하게 된다. 폰섹스나 번섹(채팅을 통해 만나 이루어지는 성관계)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태풍처럼 몰아치는 방황을 견디기 어렵다고 한다.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은 폰섹이나 번섹이 나쁜 것이냐는 확인이다.

솔직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것이다. 남자청소년들의 경우 잘 해주면 가끔은 '누나'들이 용돈도 주기 때문에 일거양득이라고 한다.

반면에 이들 청소년들은 성병이나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이나 임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전혀 무방비상태이다. 대체로 에이즈 감염의 주원인이 감염인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봤을 때, 누군가와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하는 이런 청소년들에게 에이즈 감염 위험율은 더욱 높다고 본다. 특히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겉으로는 건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에 새로운 대안적 성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내두되고 있다. '성'에 대해서 바로 알면 자기 몸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 자존감을 갖고,

잘못된 성으로 인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성적 행위는 일순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적인 관계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상품이 아니라 상대방과 사랑과 친밀감을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자신과 상대방의 성적인 건강을 고려하면서 만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안전한 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줄 수 있는 열린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